

## 가르치는 교회▪전파하는 교회▪봉사하는 교회

###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 월 행사 안내

8월 7일(수)  
한우리 수요베이직 시작

8월 25일(주일)  
성찬식

9월 1일(주일)  
전교인 거리전도 시작

9월 5일(목)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회복과정 수료식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예배

#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나하영

- 예배부름 ..... 사 회 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다 함 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봉헌 및 ..... 1부/ 김인배 장로 2부/ 안정신 권사 3부/ 조동 장로 .....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 딘후 2:3-4 ..... 사 회 자
- 찬 양 ..... 2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 시온찬양대  
 3부: 주께 맡기어라 .....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 하나님의 사람, 정체 시리즈 7 ..... 남우택 목사  
 영적 군사로 산다
- 찬 양 ..... 예수의 이름으로 ..... 다 함 께  
 주기도문
- 축 도 ..... 설 교 자

##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 다 함 께
  - 봉헌 및 ..... 김 은 지  
 대표기도
  - 찬 양 ..... 우리를 위한 사랑 .....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 눅 19:1-10 [더 나은 삶 3] ..... 김진영 목사  
 세상에 이런 일이!
  - 축 도 ..... 설 교 자
- 다음주 기도: 1부/ 김태원 장로 2부/ 이강용 장로 3부/ 오은영 권사 4부/ 조준영 청년

#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말씀: 시 111:1-10  
 제목: 그럼에도 감사  
 기도: 오 훈 집사 (다음 주 기도: 김휘홍 집사)  
 설교: 최영두 목사

#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제7기 한우리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곽두리 유창용 이지연 정상혜 조진선  
최수희
- 2025년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1부 - 싱어/메인 건반, 2부 - 신디  
3부 - 신디/ 일렉/ 드럼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카톡아이디: DavidQkim
- 한우리 도서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책들을  
준비하여 서가에 구비하여 놓았으니  
도서실로 오셔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역에 뜻이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 목적: 영어권 국가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전통과 문화, 신앙을  
경비하도록 돕는다.
  - 사역팀 모집: 전인격적인 디아스포라  
한국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 열정과  
시간으로 봉사해 주실 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홍보물 또는 기본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분도 찾고 있습니다.
  - 곧 첫 모임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김태원 021 677 132  
카톡ID: tw123

## 은퇴 목회자 모임

일시: 8월 13일(화) 오전 10:30

장소: 한우리 교회, 조이홀

## 한우리 수요베이직

8월 7일(수) ~ 9월 11일(수) 6주

7시	수요예배		
7:45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이요한목사	이성민목사	안현수목사
8:15	3, 4교구	5, 청년부	1, 2교구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2024년 9월-2025년 5월
- 거리전도에 동참할 대원과 악기(기타, 트럼펫,  
섹스폰)로 섬겨주실 분을 초대합니다.  
시간: 주일 오후 3시부터  
문의: 민봉식 장로 021 106 3498

## 교우동경

- 새가족

이름	자녀	거주지
김동빈 이수진		Monarch Ave. Hillcrest
최병선 민영미	최민 최건	Eversleigh Rd. Belmont
김동주 이지현	김세령 김민준	Fernhill Way. Oteha
이채연	박로이	Hillside Rd. Glenfield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의 이름으 로 나는 일 어서 리 라

주가 주 신능력 으로 나는 일 어서 리 라

원수 가 낱향해 와도 쓰러 지 많으 리

주가 주 신능력 으로 주가 주 신능력 으로

주가 주 신능력 으로 일 어서 리

# 목장소식

##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계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다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6 드레스덴	여승재	0211030655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소망	7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무지개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낮은 올타리	주성은	2108354513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10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임마누엘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사랑	12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15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4 양익문	조종면	275325423
다윗	17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약속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빛	22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가나	이광일	212179303		62 LA	정두련	211365151
	25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26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7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28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믿음	66 네팔 은혜
29 엘림		이명준	272970117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70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참빛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성결	72 웰링턴	이중훈	21781999
	35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73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하나님의 사람, 정체 시리즈 7  
영적 군사로 산다 (딤후 2:3-4)

성도는 주안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하지만 그 정체성에 맞게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를 전쟁 치르는 군인에 비유하는데 이유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1.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보세요.
2. 현실적으로 성도인 나 자신이 갈등하며 싸우는 현실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서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 보세요.
4. 영적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지혜를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세요.
5.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b>인도</b>	<b>“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b> 인도 목회자, 종교적 폭력 희생... 소수 종교인 우려 커져
<p>인도 중부 차티스가르 주의 한 목사가 최근 종교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서 인도 내 소수 종교인 처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지난달 21일, 바르게세 차코 목사는 담타리 마을의 한 교인 집에서 열린 집들이를 겸한 기도회에 참석하던 중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약 20명의 마을 주민들과 마주쳤다. 사건은 힌두교 사원 옆에서 일어났으며, 이 단체는 기독교인 모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폭도들은 차코 목사가 도착한 직후 강제로 집에 들어와 기도회 중단을 요구하며 기독교인들을 ‘불법 개종’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목사에게 건물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차코 목사가 떠나려고 하자 괴한들은 차코 목사를 쫓아갔고, 그곳에서 그의 차량을 세운 후 강제로 끌어내리고 몽둥이로 폭행을 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p>	
<b>한국</b>	<b>“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b> 대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교계 일제히 규탄
<p>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파트너를 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동성결합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2013년 미연방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동성혼 합법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שב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출처: 국민일보).</p>	
<h2>기 도 문</h2>	
<p><b>사랑하는 하나님,</b></p> <p><b>[인도]</b> 핍박 가운데 있는 인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p> <p><b>[한국]</b>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한국을 긍휼히 여기사, 참된 진리 위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p> <p><b>[교우를 위해]</b>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p>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